

경기

- 서울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89.6(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1% 감소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10.9%, 경공업 부문 8.2% 각각 감소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50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로 전월대비 보합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4% 하락, 서비스는 0.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1% 하락

고용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5,284천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서울의 4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명(1.9%)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8천명(2.1%), 여자는 38천명(1.8%)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국대비(-1.9%) 3.7%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상승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5.0%로, 남자는 0.5%p 하락한 5.6%, 여자는 0.4%p 상승한 4.1% 상승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p, 여자는 0.6%p 상승
 - 서울의 실업률(5.0%)은 전국 실업률(3.7%)과 1.3%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7%)과 전국(59.3%)이 0.4%p

부동산

- 서울의 4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4,59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하천정비, 철도역사 공사 등의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7.9%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신규주택, 토지조성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0.0%)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
 - 강북지역(0.1%)은 광진구(0.5%), 중랑구(0.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남지역(0.0%)은 관악구(0.3%), 서초구(0.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0.6%)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 강북지역(0.6%)은 성동구(1.2%), 서대문구(1.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0.7%)은 구로구(2.1%), 영등포구(1.4%)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금융

- 서울지역 3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35조 9,31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4,760억원(0.46%) 증가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중 신설법인수는 2,021개로 전년동월대비 3.84%(75개) 증가
- 서울의 4월 신설/부도법인 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중 신설/부도법인 비율은 38.1배로 전월(40.3배)보다 하락
- 서울의 4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서울의 수출은 48.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등의 순
 - 4월 수입은 99.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3%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생 · 산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는 89.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1%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9%,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의복 및 모피(-9.2%), 가죽 및 신발(-32.4%), 기계장비(-18.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났으며 전기장비(2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짐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로 22개월 연속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8.2%), 전기장비(-5.7%)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0.6%), 자동차(8.5%)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6.1%), 교육(-0.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9.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4%), 보건·사회복지(4.5%) 등이 증가하여 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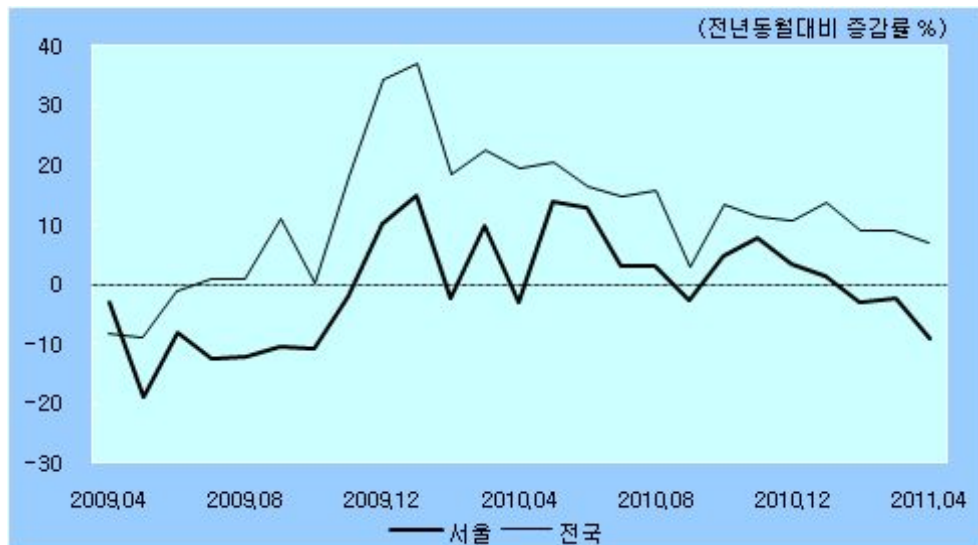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3.1	3.5	1.5	-2.9	-2.4	-9.1
	중공업	-24	1.6	2.3	4.7	-8.8	-10.9
	경공업	10.1	4.6	1.3	-6.1	0.5	-8.2
	전국	19.5	10.7	13.6	9.0	9.0	6.9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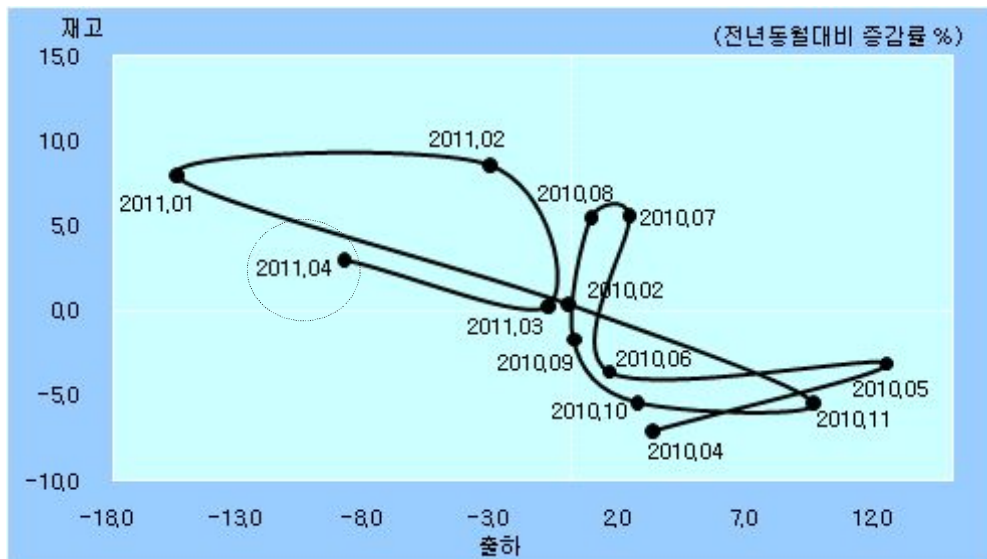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의 4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51.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증가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72.2로 전월대비 18.5%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7.7%로 전월대비 2.7%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9.8%p 증가한 18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0.9%p 증가한 162.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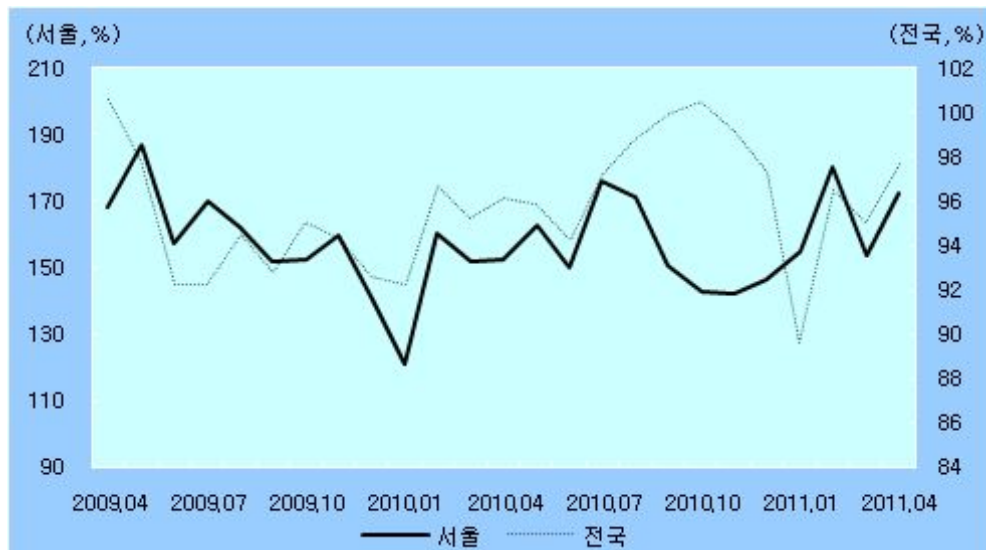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재고율	서울	152.3	146.6	154.7	180.0	153.7	172.2	18.5
	중공업	186.4	116.9	179.2	162.1	174.2	184.0	9.8
	경공업	136.2	161.4	141.2	184.8	142.0	162.9	20.9
	전국	96.1	97.3	89.6	96.5	95.0	97.7	2.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50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5% 증가, 대형마트 8.6% 증가로 전체적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구제역과 일본의 대지진 등의 환경적 영향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1,27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대형마트는 7.5%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5.7%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7.2%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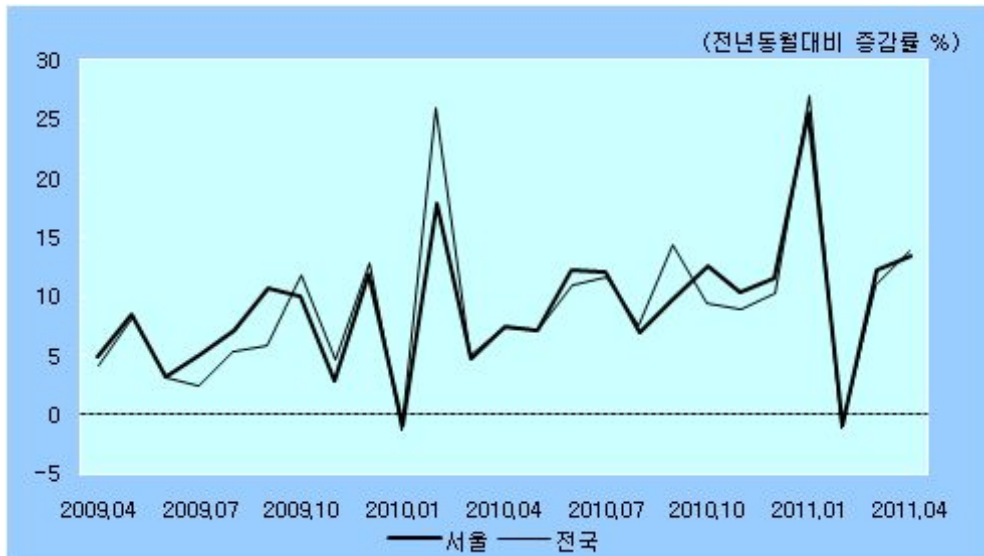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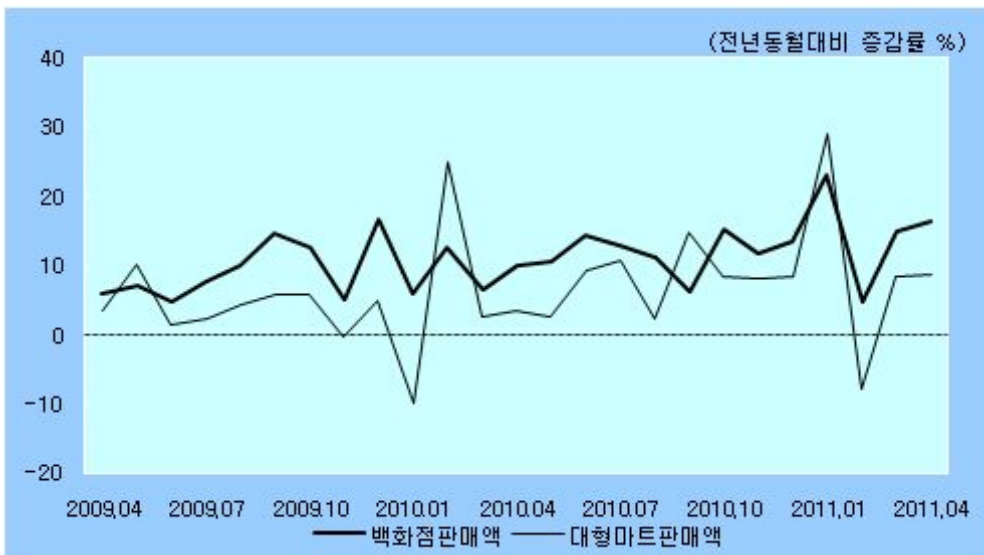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판매액	서울	1543.4 (7.4)	1905.0 (11.5)	1977.3 (25.5)	1517.3 (-0.8)	1714.3 (12.2)	1750.3 (13.4)
	백화점	935.8 (10.0)	1198.0 (13.4)	1171.2 (23.2)	896.9 (4.8)	1026.3 (14.9)	1090.4 (16.5)
	대형마트 (할인점)	607.5 (3.6)	707.0 (8.3)	806.0 (29.0)	620.4 (-7.9)	687.9 (8.5)	659.9 (8.6)
	전국	4500.8 (7.4)	5517.9 (10.3)	5992.9 (26.9)	4724.1 (-1.2)	5093.3 (10.9)	5127.3 (13.9)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세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포함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2005년=100)로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

■ 서울의 4월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하락,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전도시:-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3%(전도시:4.1%)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1% 하락(전도시:-3.8%), 전년동월대비 5.5%(전도시:7.7%) 상승

■ 전국 4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년=100)로 전월대비 포함세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8% 하락, 전년동월대비 7.7% 상승
- 16개 광역 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는 0.1~0.2%씩 상승하였고, 서울, 강원 등 7개 시도는 변동이 없었으며, 대구, 경기 등 4개 시도는 0.1%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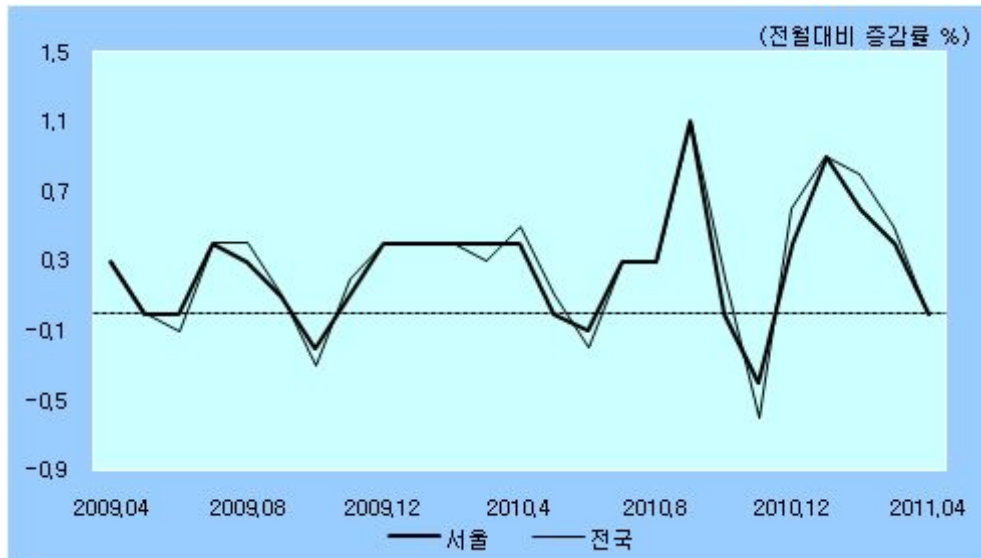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서울		0.4 (2.5)	-0.4 (3.2)	0.4 (3.3)	0.9 (3.9)	0.6 (4.1)	0.4 (4.2)	0.0 (3.7)
	상품 성질별	상품	0.9 (3.2)	-1.2 (4.8)	1.1 (5.3)	1.7 (6.4)	0.9 (7.1)	0.8 (7.3)	-0.4 (6.0)
		서비스	0.2 (2.1)	-0.1 (2.2)	0.1 (2.1)	0.6 (2.5)	0.4 (2.6)	0.1 (2.4)	0.3 (2.5)
	생활물가		0.5 (2.7)	-0.8 (3.2)	0.4 (3.2)	1.4 (4.1)	0.8 (4.5)	0.2 (4.1)	-0.2 (3.3)
	신선식품		6.2 (10.5)	-10.1 (34.6)	1.3 (29.9)	4.3 (27.2)	-0.3 (23.0)	-0.3 (16.9)	-4.1 (5.5)
	전국		0.5 (2.6)	-0.6 (3.3)	0.6 (3.5)	0.9 (4.1)	0.8 (4.5)	0.5 (4.7)	0.0 (4.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4월 채소류인 쌀과 무를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 하락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7.94% 하락,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0.01% 상승
- 품목별로는 파는 47.9%, 파는 31.3%, 양파는 11.4% 각각 하락하였으며 무는 1.6%, 쌀은 0.5% 하락
- 가격이 하락한 대부분의 품목은 채소류로 겨울로 인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세인 것으로 판단됨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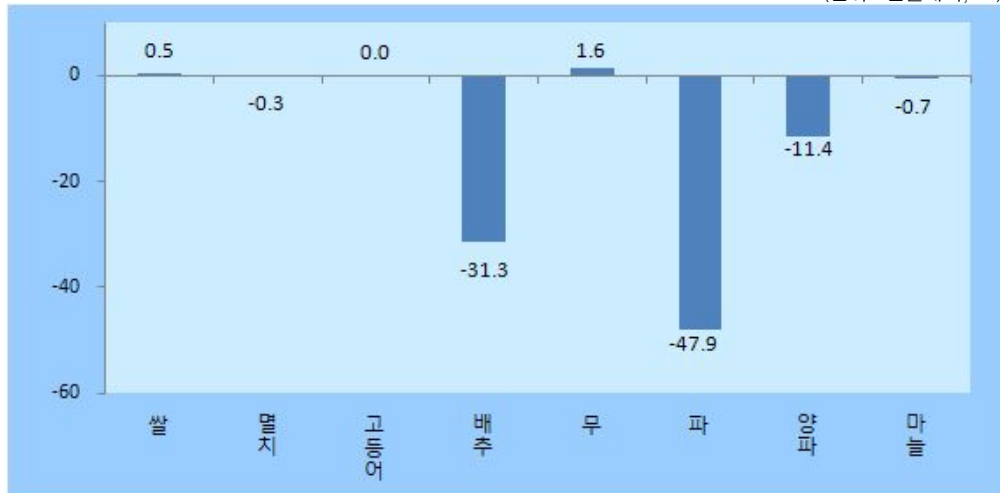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률
양곡	쌀	42,435	39,109	39,046	41,609	42,461	41,700	-1.8
수산	멸치	2,543	2,677	2,428	2,615	2,592	2,380	-8.9
	고등어	2,714	3,545	3,674	4,000	4,000	4,000	0.0
채소	배추	7,679	3,908	3,404	4,728	4,805	4,677	-2.7
	무	4,069	2,849	2,655	4,728	4,805	4,677	-2.7
	파	5,927	4,974	4,181	4,302	4,238	3,669	-15.5
	양파	1,726	1,910	1,802	1,962	2,307	2,365	2.5
	마늘	12,329	11,121	8,866	6,863	6,986	6,727	-3.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8,4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0.4%)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2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명(1.8%)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1.9%)이 감소

■ 전국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4월 15세이상인구는 40,9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3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2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2천명(1.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36천명으로 200천명(1.4%)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504천명으로 182천명(1.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2.0 (1.5)	1.9 (-0.3)	2.7 (0.5)	1.4 (-1.2)	2.4 (1.2)	3.0 (0.9)	1.8 (0.4)
	남자	1.4 (0.9)	0.9 (-0.4)	1.4 (0.2)	0.1 (-1.2)	1.3 (1.1)	2.2 (1.2)	1.6 (0.3)
	여자	2.8 (2.3)	3.3 (-0.3)	4.5 (1.0)	3.2 (-1.1)	3.8 (1.3)	4.1 (0.3)	2.2 (0.4)
	전국	1.6 (2.0)	0.9 (-0.6)	2.0 (-1.2)	0.1 (-1.7)	1.6 (1.3)	2.2 (2.0)	1.5 (1.3)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2.0	61.8	62.1	61.4	62.1	62.6	62.8
	남자	73.2	73.1	73.2	72.3	73.1	74.0	74.2
	여자	51.3	51.2	51.7	51.1	51.8	51.9	52.1
	전국	61.4	61.0	60.1	59.0	59.8	60.9	61.6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명(1.9%)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4천명, 여자는 2,1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8천명(2.1%), 여자는 38천명(1.8%)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29천명(8.1%), 농림어업 0.4천명(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8천명(4.1%), 전가운수통산·금융업 32천명(4.1%)이 각각 증가한 반면, 제조업 41천명(-7.6%), 도소매음식숙박업 2천명(-0.2%)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국대비(-1.9%) 3.7%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4월 취업자는 24,3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9천명(1.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7천명(1.6%) 증가하였고, 여자는 10,152천명으로 152천명(1.5%)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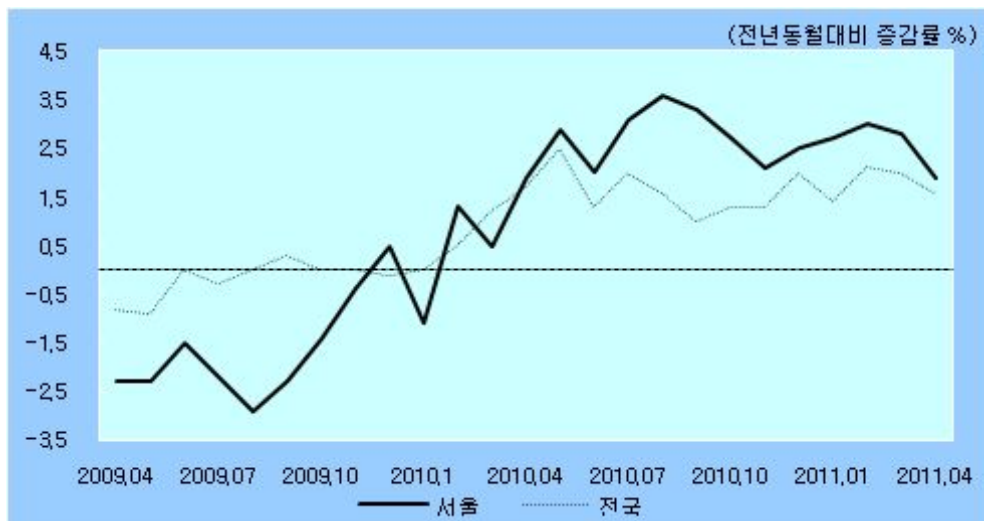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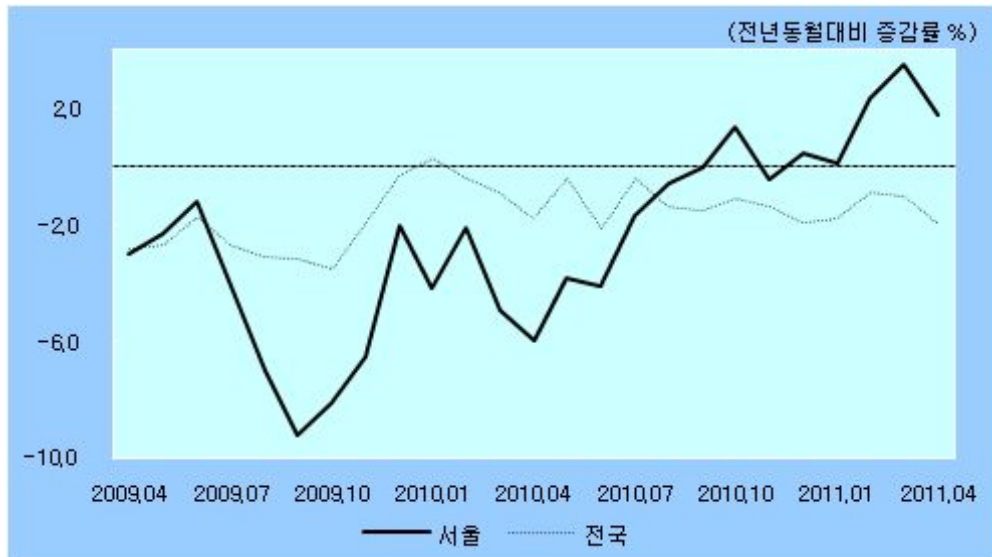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서울	1.9 (1.6)	2.1 (0.2)	2.5 (0.3)	2.7 (-1.7)	3.0 (0.7)	2.8 (0.7)	1.9 (0.8)
	남자	1.0 (0.6)	0.4 (-0.2)	1.0 (0.6)	1.5 (-1.9)	1.9 (0.5)	2.0 (1.2)	2.1 (0.7)
	여자	3.1 (3.1)	4.3 (0.7)	4.5 (0.0)	4.4 (-1.4)	4.5 (0.9)	3.9 (0.0)	1.8 (1.0)
	전국	1.7 (2.3)	1.3 (-0.3)	2.0 (-1.8)	1.4 (-2.1)	2.1 (0.6)	2.0 (2.2)	1.6 (1.9)
청년층 취업자	서울	-6.0 (2.6)	-0.4 (-0.2)	0.5 (3.4)	0.1 (-1.2)	2.3 (1.1)	3.5 (-1.9)	1.8 (0.9)
	전국	-1.8 (2.0)	-1.4 (1.4)	-1.9 (0.1)	-1.8 (1.3)	-0.9 (-1.5)	-1.0 (-1.8)	-1.9 (1.0)
고령층 취업자	서울	13.6 (4.5)	1.3 (-1.3)	2.5 (-1.0)	10.4 (-3.2)	12.5 (2.6)	8.1 (3.9)	2.7 (-0.7)
	전국	4.0 (9.4)	0.6 (-4.4)	5.8 (-9.6)	4.6 (-9.0)	6.4 (4.8)	7.1 (13.5)	4.6 (6.9)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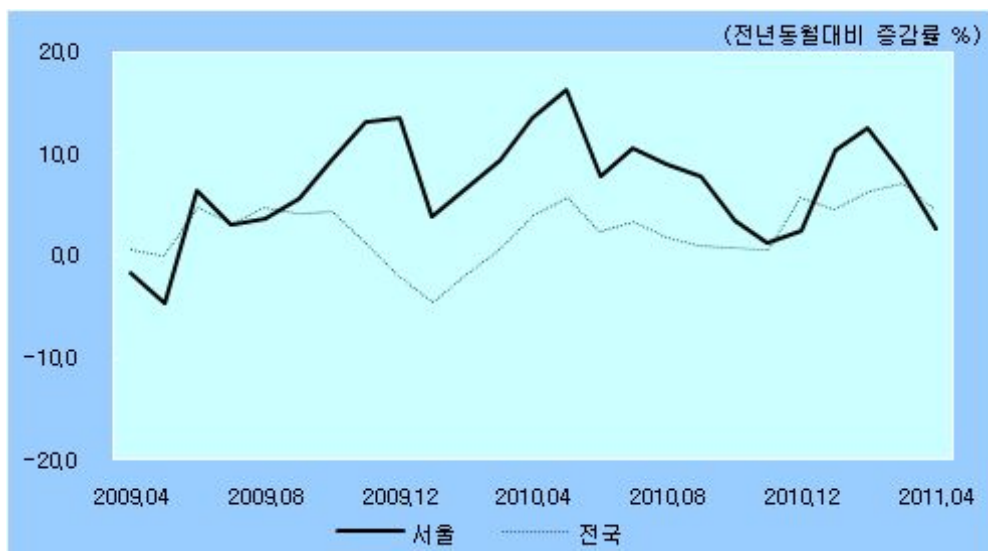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54.5%), 사무종사자 119천명(14.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1천명(0.8%)이 각각 증가한
-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천명(-1.6%),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5천명(-1.2%)이 각각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1,198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823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41천명(-3.9%)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1.7%)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68천명(8.1%), 일용근로자는 22천명(5.5%)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56천명(-4.6%) 감소

■ 서울의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명(-6.9%)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4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천명(3.0%)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12.6%)이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14천명(-3.7%)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1천명(5.2%)이 증가하였으나,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4천명(-1.7%)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25.2%)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4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 업 별	제조업	5.1 (3.1)	6.4 (-3.6)	3.1 (-2.1)	-0.9 (-3.7)	1.3 (4.3)	-5.0 (-3.1)	-7.6 (0.3)
	SOC 및 기타서비스업	1.5 (1.5)	1.5 (0.7)	2.4 (0.7)	3.1 (-1.4)	3.2 (0.3)	3.7 (1.1)	3.1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8 (3.5)	3.0 (1.0)	5.3 (0.7)	8.0 (-1.4)	7.4 (1.1)	6.4 (0.5)	4.1 (1.3)
	도소매·음식숙박	-0.4 (-1.0)	-4.8 (0.6)	-4.6 (1.1)	-5.6 (-1.6)	-4.8 (-0.4)	-0.4 (2.8)	-0.2 (-0.8)
	전기·운수·통신·금융	4.0 (0.7)	5.9 (0.8)	4.8 (0.9)	3.8 (0.0)	3.5 (0.0)	2.6 (-1.7)	4.1 (2.2)
	건설업	-3.6 (2.4)	8.8 (-1.0)	9.3 (-1.5)	11.7 (-3.9)	13.5 (-0.9)	8.6 (4.3)	8.1 (2.0)
직 업 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2 (2.0)	-2.3 (-0.2)	-0.1 (1.7)	0.4 (-0.6)	1.7 (0.7)	1.4 (-0.6)	-1.6 (-1.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0.6 (4.0)	6.4 (-2.6)	8.0 (-0.3)	9.2 (-3.6)	8.8 (2.8)	3.9 (1.2)	0.8 (0.9)
	서비스·판매종사자	-2.4 (-1.1)	-2.6 (0.9)	-3.1 (0.1)	-5.1 (-0.9)	-4.9 (-1.6)	-2.7 (0.5)	-1.2 (0.5)
	사무종사자	-2.1 (1.3)	9.3 (4.4)	6.4 (-0.2)	8.9 (-1.3)	8.0 (0.4)	11.4 (2.0)	14.2 (3.8)
종 사 상 지 위 별	임금근로자	1.8 (2.0)	3.4 (0.2)	4.3 (0.6)	5.1 (-2.2)	5.4 (0.9)	4.7 (0.4)	3.6 (0.9)
	비임금근로자	2.3 (0.7)	-2.0 (0.2)	-3.0 (-0.5)	-4.3 (0.1)	-3.9 (-0.1)	-3.0 (1.6)	-3.1 (0.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 증가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2%)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1천명, 여자는 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1천명(-6.1%)이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천명(12.7%)이 증가
-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 여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5%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0.4%p 상승

■ 전국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4월 실업자는 9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4.4%) 감소하였고, 여자는 3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명(9.0%)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서울 및 전국의 4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0%, 여자는 50.0%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p, 0.6%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4%p 차이
- 전국의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자는 48.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상승

〈표〉 서울의 실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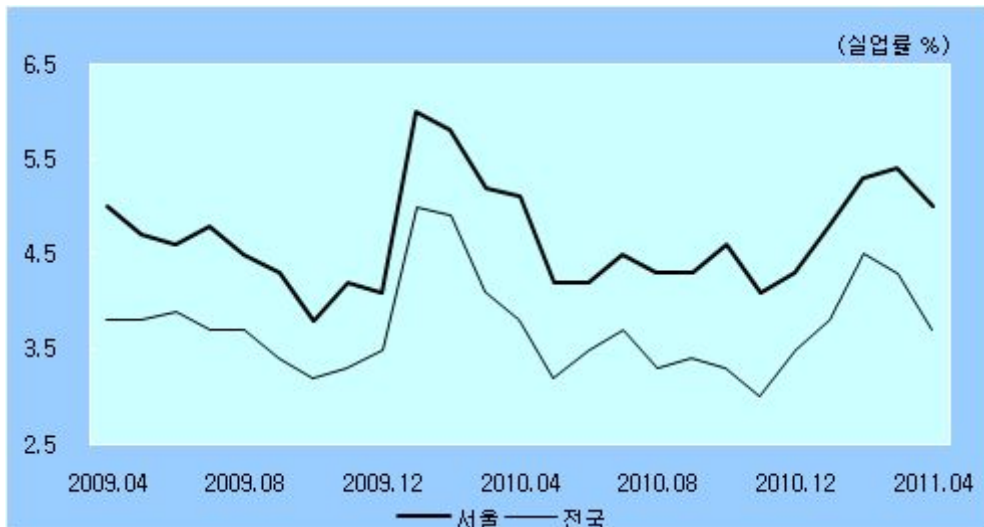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서울	5.1	4.1	4.3	4.8	5.3	5.4	5.0
	남자	6.1	5.1	4.8	5.4	5.9	6.0	5.6
	여자	3.7	2.7	3.6	4.0	4.3	4.7	4.1
	전국	3.8	3.0	3.5	3.8	4.5	4.3	3.7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8	10.0	8.1	7.7	8.0	9.3
	전국	8.1	7.6	9.5	7.7	7.6	7.1	8.8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1.7	7.2	4.3	3.1	2.7	5.3
	전국	1.6	1.5	5.8	2.1	2.0	1.9	4.5

주: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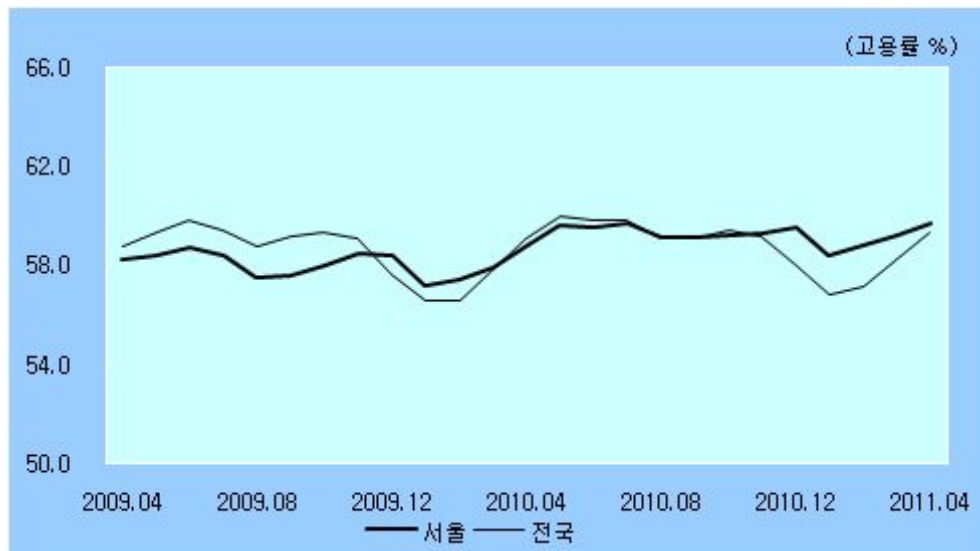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고용률	서울	58.8	59.3	59.5	58.4	58.8	59.2	59.7
	남자	68.8	69.3	69.7	68.4	68.7	69.5	70.0
	여자	49.4	49.9	49.8	49.1	49.5	49.5	50.0
	전국	59.1	59.2	58.0	56.8	57.1	58.3	59.3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8	42.8	42.8	44.1	44.0	43.7	44.4
	전국	40.7	40.1	40.1	40.8	40.6	39.9	40.0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1	32.5	29.4	32.7	32.7	32.0	31.3
	전국	38.9	36.4	31.4	38.4	38.2	35.8	32.0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4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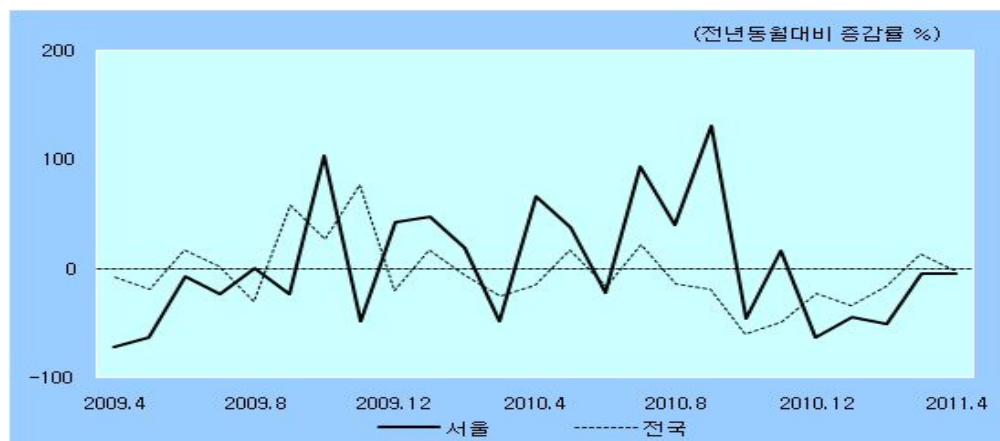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5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하천정비 및 배수지, 철도역사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7.9%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주택 및 통신기지국, 토지조성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공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축부문은 보합, 토목부문은 46.0%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4,59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1,117	1,945	2,020	519	642	1,068	1,006	-5.0	-5.8
발주자별									
공공	213	79	607	141	35	177	61	-27.9	-65.5
민간	833	1,866	1,265	359	580	891	927	-4.8	4.0
공종별									
건축	931	1,932	1,829	497	605	1,049	944	0.0	-10.0
토목	186	13	191	22	37	19	62	-46.0	226.3
전국	6,314	7,459	14,014	4,658	3,959	7,179	6,459	-2.7	-10.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되면서 보합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 수도권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증가
-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0.0%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1%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0.8%로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지역발전 호재와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각각 1.4%, 1.3% 상승하여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서울		103.0	102.1	102.1	-0.9	0.0
아파트		102.7	100.9	100.9	-1.8	0.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2.1	101.0	101.1	-1.1	0.1
	강남	103.9	103.2	103.2	-0.7	0.0
전국		102.3	105.7	106.6	4.1	0.8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중랑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용산구는 소폭 하락하여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광진구는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으로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지 않은 연립주택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중곡동 등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0.5% 상승
- 중랑구는 지하철 7호선 및 중앙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0.3% 소폭 상승
- 용산구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0.1% 소폭 하락

■ 강남, 전월대비 보합

- 강남지역은 관악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강서구는 소폭 하락하여 전월대비 보합
- 관악구는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와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지속하여 전월에 이어 0.3%로 상승 지속
- 서초구는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804.98만원으로 전월(1,807.11만원)대비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94만원), 서초구(2,880만원), 용산구(2,552만원), 송파구(2,403만원), 양천구(1,949만원), 광진구(1,879만원), 강동구(1,86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2만원), 도봉구(1,100만원), 중랑구(1,132원), 강북구(1,13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전월 대비 0.6% 상승

- 강북지역은 성동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성동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1.2% 상승
- 서대문구는 북아현 뉴타운 이주수요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직장인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 강남지역은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어 전월대비 0.7% 상승
- 구로구는 개봉동 재건축 이주로 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 단지의 근로자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1% 상승
- 영등포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4% 상승
- 관악구는 이사철을 지나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및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1%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1.2%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세 공급물량 부족과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어 전월대비 1.2% 상승
- 서울과 인천, 수도권외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어 각각 전월대비 0.6%, 0.6%, 0.9%로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모두 전월대비 1.4%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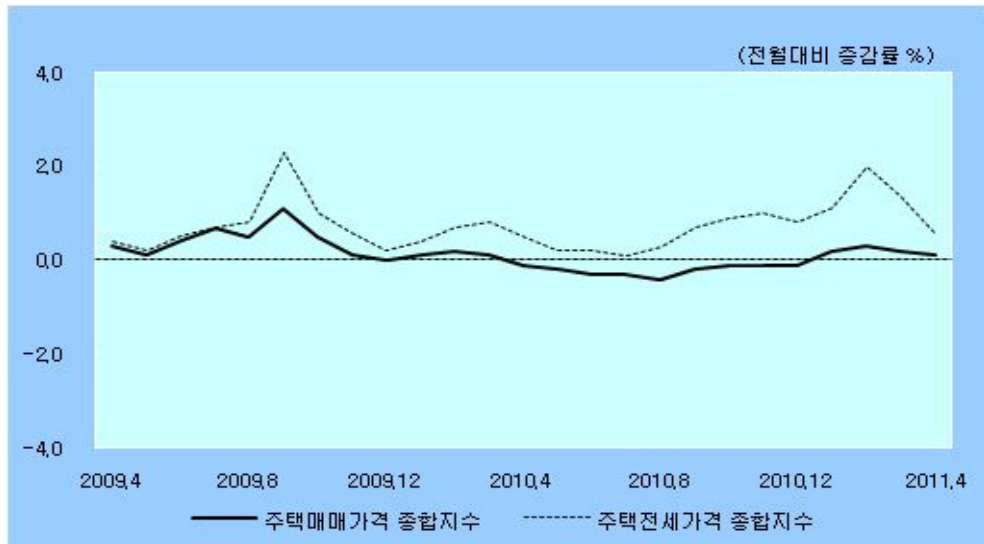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서울		108.5	117.4	118.1	8.8	0.6
아파트		111.1	122.0	122.8	10.5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6.3	113.9	114.5	7.7	0.6
	강남	110.8	120.9	121.8	9.9	0.7
전국		105.7	115.5	116.9	10.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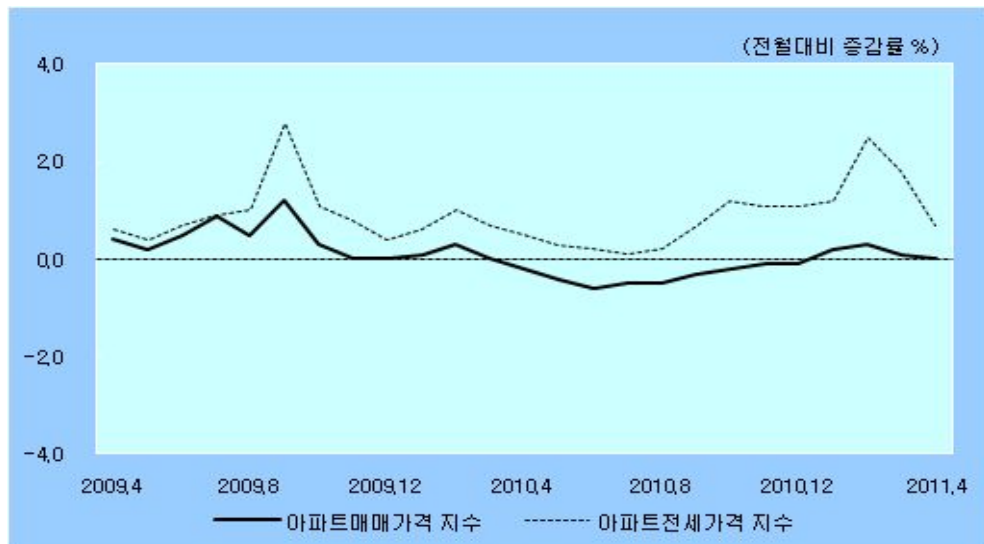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4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4월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6.8%로 전월(46.4%)보다 0.4%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4월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9%보다 12.1%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0%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9.5%, 강남 44.6%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부터 상승세 지속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4월 국고채 전월대비 포함

- 4월 중 국고채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면서 전월대비 포함
 - 4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경기상승세 지속 및 물가불안 우려 등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미국 국채금리 하락, 외국인 순매수 지속 등이 상승을 제한되면서 전월대비 포함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
 - 4월 중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01%p 하락하여 4월 중 4.49%로 마감
 - 4월 중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MMF 수신 부진 등으로 상승하여 4월 중 3.40%로 마감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장기) 금리의 하락과 CD(단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05%p 하락하여 0.34%로 마감
- KOSPI 지수 전월대비 하락
 - 4월 중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상승, 국내기업실적 호조,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여 4월 중 2,153.13p로 마감
- 4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 4월 중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월대비 -35.61원 하락하여 4월 중 1,086.84원으로 마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B-A)
		4월	12월	1월	2월	3월(A)	4월(B)	
금리	국고채(3년)	3.77	3.25	3.71	3.94	3.74	3.74	0.00
	CD(91일물)	2.51	2.80	2.93	3.13	3.35	3.40	0.05
	콜금리(1일)	2.00	2.50	2.66	2.75	2.92	3.01	0.09
	장단기 금리차 ¹⁾	1.26	0.75	0.78	0.81	0.39	0.34	-0.05
주가	KOSPI	1730.29	2,002.50	2,091.61	2,002.87	2,002.67	2,153.13	150.46
	KOSDAQ	512.86	505.36	528.60	517.58	510.59	528.44	17.85
환율 (₩/US\$)		1,115.71	1,147.55	1,120.07	1,118.14	1,122.45	1,086.84	-35.61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4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4월중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대출가산금리 인하 및 신규상품 출시 등 은행의 대출확대노력, DTI규제 환원 이전 신청분 취급 등으로 증가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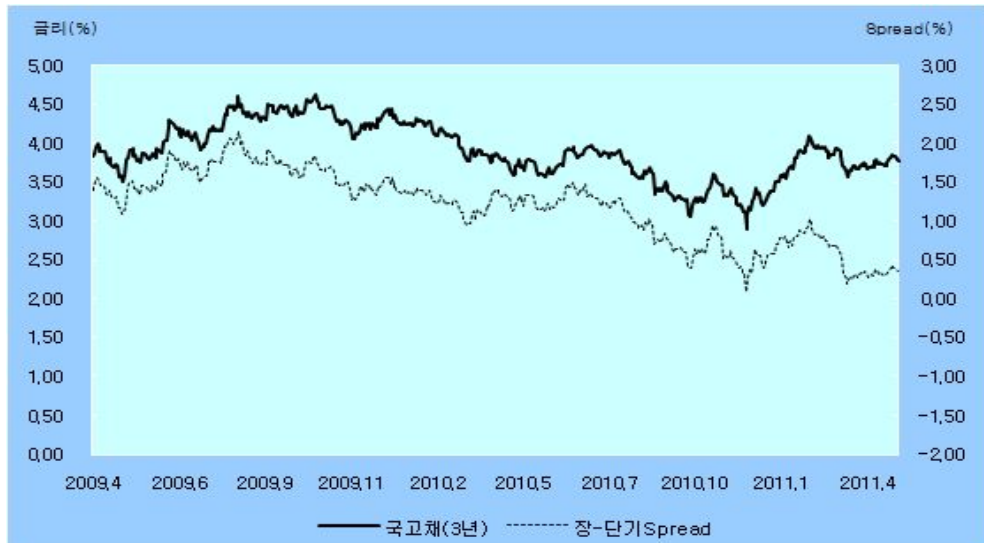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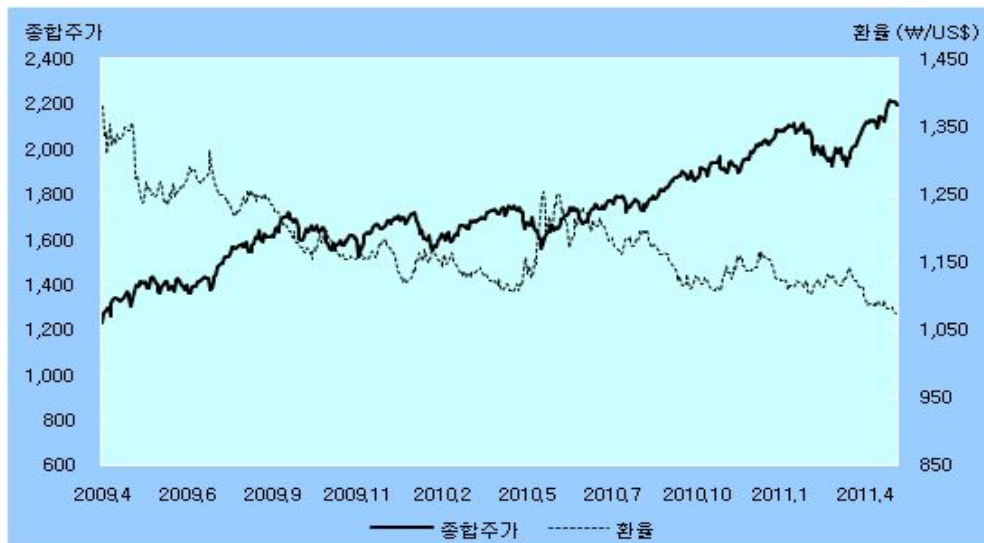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월말잔액	
		연중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1년	
								3월	4월
가계대출 ¹⁾		21.8	2.1	-1.0	1.5	1.7	2.5	434.1	436.6
주택담보대출 ²⁾		20.3	2.7	0.8	1.8	2.1	2.4	289.9	292.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7	-0.5	-1.7	0.4	-0.4	0.2	143.3	143.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3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35조 9,31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4,760억원(0.46%) 증가
- 3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42조 7,036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2,679억원(0.54%)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예금은행	415,746.7	423,631.2	426,698.5	429,612.8	432,527.1	2,914.3	0.68
	비은행기관	93,318.7	97,894.2	99,856.6	103,842.7	103,404.4	-438.3	-0.42
	합계	509,065.4	521,525.4	526,555.1	533,455.5	535,931.5	2,476.0	0.46
전국	예금은행	962,695.9	987,148.1	993,802.1	1,001,239.2	1,008,342.8	7,103.6	0.71
	비은행기관	308,949.1	327,823.0	329,769.4	334,196.5	334,360.8	164.3	0.05
	합계	127,1645.0	1,314,971.1	1,323,571.5	1,335,435.7	1,342,703.6	7,267.9	0.54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4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21개로 전년동월대비 3.85%(75개) 증가, 전월대비 1.65%(34개) 감소
- 4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583개로 전년동월대비 1.36%(75개) 증가, 전월대비 3.01%(173개) 감소

■ 서울의 4월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10.44%(158개) 증가하였으나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8.83%(25개), 7.09%(10개)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946	2,000	1,501	2,055	2,021	-34	-1.65	75	3.85
서비스업	1,513	1,566	1,165	1,677	1,671	-6	-0.36	158	10.44
제조업	283	283	222	222	258	36	16.22	-25	-8.83
건설 및 설비업	141	138	104	131	131	0	0.00	-10	-7.09
전국	5,508	5,661	4,248	5,756	5,583	-173	-3.01	75	1.36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4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동일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 상승,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6%로 전월보다 0.04%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3개로 전월대비 3.9%(2개) 소폭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34개로 전월대비 11.7%(14개)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8.1배로 전월(40.3배)보다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5.3배로 전월(72.0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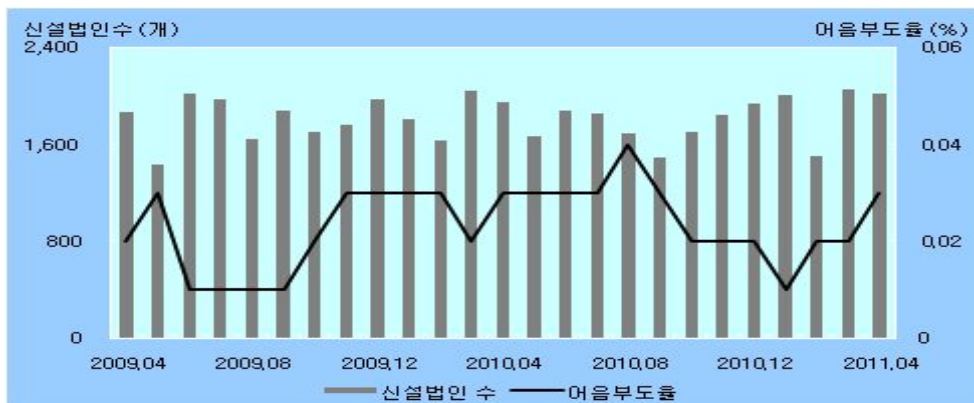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2	0.02	0.03	0.01	50	
	부도업체 수	41	26	45	51	53	2	3.9	
	신설/부도법인배율	55.6	76.9	33.3	40.3	38.1	-2.2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1	0.02	0.02	0.06	0.04	200	
	부도업체 수	125	74	99	120	134	14	11.7	
	신설/부도법인배율	60.5	76.5	55.2	72.0	55.3	-16.7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4월 신용보증 공급건수 전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건수 감소 및 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4월 중 3,004건, 79,711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1.1% 감소, 보증금액 21.2%,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2.1% 증가하였으며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7.1%, 42.7%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 월 비		(전년동월비)	
	4 월	1 월	2 월	3 월	4 월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건 수	7,004	1,894	2,054	3,038	3,004	-34	-1.1	-4,000	-57.1
금 액	139,032	23,167	40,038	65,787	79,711	13,924	21.2	59,321	-42.7
건당평균금액	19.9	12.2	19.5	21.7	26.5	4.8	22.1	6.6	33.2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 지원 비중 소폭 상승

- 4월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9.6%로 전월(38.7%)대비 0.9%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18.6%로 전월(22.7%)대비 4.1%p 감소하였으며,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7.6%로 전월(36.0%)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종은 24.2%로 전월(24.9%)대비 0.7%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 타	합 계
건 수	268	1,130	617	725	264	3,004
비 율	8.9	37.6	20.5	24.2	8.8	100.0
금 액	9,656	31,525	14,268	14,813	9,449	79,711
비 율	12.1	39.6	17.9	18.6	11.8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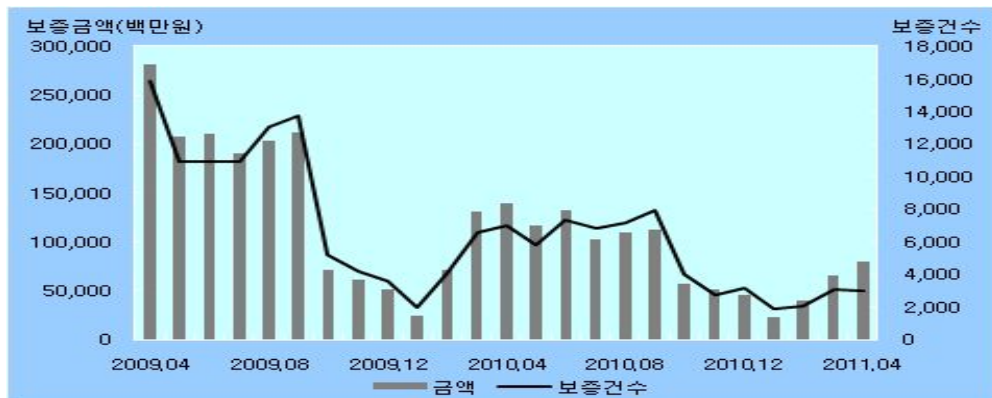
- 4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79.9%로 전월대비 8.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2.6%로 2.1%p 감소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5.0%, 건수기준 5.0%로 전월대비 각각 7.7%p, 1.9%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5.1%, 건수기준으로는 2.4%로 전월대비 각각 0.6%p, 0.2%p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 분		2011. 2	2011. 3	2011. 4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 수	1,945	2,877	2,781	-96
	비 율	94.7	94.7	92.6	-2.1
	금 액	34,520	58,040	63,693	5,653
	비 율	86.2	88.2	79.9	-8.3
소기업	건 수	74	95	151	56
	비 율	3.6	3.1	5.0	1.9
	금 액	4,015	4,785	11,987	7,202
	비 율	10.0	7.3	15.0	7.7
중기업	건 수	35	66	72	6
	비 율	1.7	2.2	2.4	0.2
	금 액	1,505	2,966	4,033	1,067
	비 율	3.8	4.5	5.1	0.6
합 계	건 수	2,054	3,038	3,004	-34
	비 율	100	100	100	0
	금 액	40,036	65,787	79,711	13,924
	비 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4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서울의 수출은 48.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였고, 수입은 99.9억 달러로 9.2% 감소
- 4월 전국의 수출은 491.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고, 수입은 440.1억 달러로 3.0% 감소

■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52,578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697,350천 달러에 달하였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무선통신기기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733	3,817	3,626	4,589	4,828	239	5.2	
	수입	8,959	9,610	8,716	10,997	9,990	-1007	-9.2	
전국	수출	39,301	44,628	38,168	48,065	49,153	1088	2.3	
	수입	35,522	41,824	36,228	45,390	44,015	1375	-3.0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4월		2011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733	44.8	4,828	29.3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48	-7.8	553	58.7
2	자동차부품	312	46.2	417	33.4
3	편직물	232	11.9	277	19.1
4	반도체	204	18.7	248	21.4
5	계측제어분석기	25	8.3	213	752.7
6	합성수지	214	38.1	199	-7.0
7	고무제품	138	7.5	194	40.6
8	합성고무	117	17.2	170	45.0
9	무선통신기기	129	-8.8	153	19.3
10	인조장섬유직물	95	38.3	116	22.3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4월		2011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8,959	42.5	9,990	11.5
1	반도체	687	17.5	697	1.5
2	컴퓨터	494	7.0	614	24.3
3	석유제품	725	65.6	513	-29.2
4	의류	265	31.1	352	32.6
5	무선통신기기	192	-2.8	302	57.2
6	철강판	207	96.8	281	36.0
7	플라스틱 제품	233	24.4	260	11.9
8	농약및의약품	201	5.9	260	29.3
9	육류	109	-9.4	243	123.0
10	자동차	209	-14.6	235	12.1

자료: 무역협회